



박소현의 섹.시.토크

며칠 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을 생각하면 J는 지금도 혈압이 오른다.

부부 사이가 사들해졌다고 노래를 부르는 딸을 위해 친정엄마가 손자 돌을 바 주기로 결정한 덕분이었다.

영화표도 예매하고 유명한 맛집도 알아두었다. 저녁 먹을 때 간단히 와인을 한 잔씩 한 다음 시내 호텔에서 하룻밤 투숙하는 것이 J가 나름대로 계획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위대한 플랜이었다.

직장 상사의 종말로 만난 J부부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처음 손을 잡고, 결혼식 전날 밤에야 겨우 입을 맞추었을 만큼 썩매 커플이었다.

“나도 한 번 씬은 불륜 커플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숙박업소에 들어가 보고 싶다구.”

며칠 전 J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이 여자 가 왜 이러나 싶어 침침 놀라면서도 그리 싫지는

않은 얼굴이었다. ‘그래, 저 남자도 뭔가 자극이 필요했던 거야.’ 남편의 반응에 힘을 얻은 J는 시내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모텔을 검색해 알아두었고, 나름 야한 숙곳도 한 발 사두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하면서 J가 결정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텔을 잡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경험 없는 초짜들의 경우엔 더더욱 말이다.

밤 8시, J가 바리던 대로 남편 허리에 팔을 두르고 불륜커플처럼 들어선 모텔 로비, 방이 있긴 있는데 하룻밤 숙박에 이십 만원을 부른다.

밤 8시, J가 바리던 대로 남편 허리에 팔을 두르고 불륜커플처럼 들어선 모텔 로비, 방이 있긴 있는데 하룻밤 숙박에 이십 만원을 부른다.

그런데 다음에 간 모텔은 가격이 더 비싸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정도는 쥐야 방을 잡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나왔다.

그렇게 여섯 군데 즈음 더 가 봤을 것이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 다리 아파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다는 남편의 말에 다시 처음의 모텔로 돌아갔더니 그 사이 방이 다 찻단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모텔서 ‘하룻밤 불륜’을 꿈꾼 결혼 10년차 썩매 아줌마 실망 “뭘 방이 없다고..”

다시 네 군데 정도 더 찾아 헤매었다. 그 많은 모텔들이 모두 꽉 차 있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던 불륜커플 흥내도 이제 재미가 없어졌다.

할 수 없이 남편과 나뉘어 모텔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제라도 집에 들어가면 그만이었지만 웬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쟁취한 밤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모텔은 아무나 가나

누비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린다. “여기 방 있대!”

“그래, 그럼 당장 갈게.” “근데 당신이 좋아할 타입은 아니야.”

“뭘 어때, 괜찮아.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J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J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모텔 안의 여관의 행색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실망한 J의 표정을 살펴며 남편이 “싫으면 그냥 집에 갈래?”라고 말한다.

“아니야, 들어가자.”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온 여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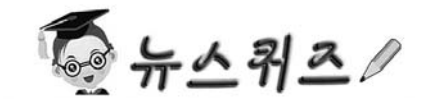
아, 그런데 돈을 십만 원이나 지불하고 들어왔건만 방안은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다. TV는 코딱지만하고 침대는 푹 꺼져 있고 욕실에는 월플욕조는 커녕 아예 욕조 자체가 없었다.

그렇다고 거사를 처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J는 그날 밤을 생각할 때마다 십만 원이 너무 아깝다. 십만원 내고 그런 방에서 잘 거였으면 이십만원 내고 처음 모텔에 갔을 텐데, 암만 생각해도 후회가 밀려온다.

어릴 받아 하는 J, 그녀는 남편이 이렇게 말해 주길 내심 바랬다.

“내년에는 호텔로 데려가 줄게.” 그런데 정작 남편이 한 말은 이랬다.

“예수님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났는데, 그 정도면 괜찮았지 뭐 그래.” <연애칼럼니스트>



95. 미 시사주간 타임은 최근 ‘올해의 인물’로 러시아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후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에 안장을 가져온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해 선정했다는 것이 리처드 스텐켈 타임 편집장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블라디미르 푸틴 ② 알 고어 ③ 힐러리 클린턴 ④ 버락 오바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28일(음 11월 19일 丙申)

36년생 밖은 시끄러워도 자신은 편안하다. 48년생 일본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라. 60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 점검을 해보라.

37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액을 면한다. 49년생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지 마라. 61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하라. 73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38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50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이익이 생기리라. 62년생 작은 병도 조심해야 한다. 74년생 가능한 변화는 주지 않으면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39년생 상황은 어려워지만 마음은 편하다. 51년생 친구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협심로 돌아오라. 6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75년생 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40년생 모았던 재물을 나눠주면 복이 온다. 52년생 친한 주변으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을 수니 경직하게 보라. 64년생 다 된 밥에 코 빠짐과 격정이다. 76년생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개발을 위해 투자하라.

41년생 눈치만 보인다가는 명에 머물러는 구실이 생긴다. 53년생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니 자신을 돌아보라. 65년생 쫓아고우의 단점을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가라. 77년생 의외의 소비가 생긴다.

42년생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니 행복하다. 54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66년생 쉼 먹고 일 먹는 좋은 일이 생기니 결과는 반반이다. 78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진행하기는 아직 이르다.

43년생 어려운 운까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55년생 있는 대로 믿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67년생 산 남이 산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라. 79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인내하라.

44년생 옛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은 모색하라. 56년생 위장과 소화기계의 검진을 해보라. 68년생 독불장군은 없으니 상대방의 인격도 인정하면 좋으리라. 80년생 시부르덴 실패한다.

45년생 발길에 비단옷 입고 다닌 격이나 빛이 나지 않는다. 57년생 어려움은 다투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69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가슴은 답답하다. 81년생 자신의 능력을 포함하는 자가 나 타날 수도 있다.

46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이 온다. 58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70년생 부부간의 언쟁이 있으나 애정은 새롭다. 82년생 가족의 석구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47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59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새겨봐야 하라. 71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 83년생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with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알뜰살뜰 직장인 “연말 소득공제 챙기세요”

애인이 없어도, 약속이 없어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주 인 터넷 세상을 달구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김없이 안방을 찾아오는 ‘나 홀로 집에’는 올해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만 날 사람 하나 없이 외로운 솔로들은 주연배우 맥 컬리 컬킨의 재능을 보며 쓸쓸함을 달랬다.

을 점령한 솔로들에 의해 특선영화도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다.

함께 영화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밤을 보내려는 커플들은 최신 개봉영화 검색에 열을 올렸다. ‘황금나침반’, ‘나는 전설이다’ 등의 최신 영화에 대한 예약과 영화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플 들의 질문과 답변이 쏟아지면서 검색어 시장에도 크리스마스 열기가 이어졌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소식만 들린 것은 아니었다. 이선우와 이승신이라는 이름도 네티즌의 클릭세를 받았다. 코미디언 출신 가수 이선우는 가수 현진영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던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과 함께 네티

즌의 비난을 받았다. 탤런트 이승신은 남편 김중진 공원을 관련하여 중 김중진의 팬을 자처하는 스토커의 습격을 받아 전직 5주의 부상을 입고, 25일 경찰에 스토커를 고소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와 현금 영수증 등의 검색어가 알뜰살뜰한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Go board game diagram for '남녀 페어부 결승전' (Men and Women Pair Match) with numbered stones and a '참고도' (reference board).

Go board game analysis for '환상의 콤비' (Fantasy Pair) between Lee Yong-hui and Lee Seon-ah.

Baduk (Go) news article titled '박영훈 "GS배 넘보지 마세요"' (Park Young-hoon "Don't peek at GS's move").

English lesson for 'Let's shop there!' (거기서 삽시다) with dialogues and grammar notes.

Japanese lesson for '携帯(けいたい)が鳴(なる)。(휴대폰 울린다)' with dialogues and vocabulary.

Chinese lesson for '你有几支铅笔?'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with dialogues and grammar.

Chinese lesson for '自己动手(자수성가)' (Do it yourself) with a story and vocabulary.